

국회 국토위 부결...‘세종시 수정안’ 운명은?

뒤집기 난망...“오기 정치 할건가”

부결 뻔한데...친이계 본회의의 표결 추진 野·친박계 강력 반발 2차 충돌 불가피



지난 9개월여 온 나라를 뒤흔든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으나 여권 주류는 본회의의 표결 추진을 고집하고 있어 정국이 또 다시 뒹굴 조짐이다.

대부분 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되는 게 상례이지만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개개인의 표결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법 87조를 적용, 수정법안의 본회의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개월여 온 나라를 뒤흔든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으나 여권 주류는 본회의의 표결 추진을 고집하고 있어 정국이 또 다시 뒹굴 조짐이다.

대부분 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되는 게 상례이지만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개개인의 표결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법 87조를 적용, 수정법안의 본회의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당 친박계 의원들과 ‘물밑 공조’를 통해 표 단속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의원들에 대한 해외 출장 금지령도 내린 상태다.

친박계도 세종시 수정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상정·처리키로 한 여야간 합의를 거부하며 ‘오기정치’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친박계는 세종시 수정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참석해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친이계가 본회의의 표결을 고집한다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

상된다. 난항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본회의의 상정과 표결이 다음 회기로 넘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경우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91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최소 146표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 168명중 친이계 90~100명은 찬성하고, 친박계 50~60명은 반대하며 중도파에서는 표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무소속에서는 전체 123명 가운데 120명 정도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 수정안의 상임위 부결과 관련,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뒤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정부에서 법을 제출해 국회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모든 의원이 마지막까지 역사적인 책임을 갖고 잘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천 안 되면 말고...” 남구 ‘묻지마 출마’ 눈살

너도 나도 보선 출사표...유권자들 우려

오는 7월28일 치러질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앞두고 ‘묻지마 출마’가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의 후보 공천 방식이 전라공천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인사들이 ‘안 되면 말고’식으로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감을 키워보려는 일부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어 남구 보궐선거판은 더욱 혼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전직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은 과거 지역구를 등지거나 과거 인연을 강조하며 광주 남구 진출에 나서고 있다.

정동채 전 의원(광주 서)이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광산구청장 출신의 전진길 전 의원(광산구)도 남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패배, 남구를 떠났던 지병문 전 의원도 교수직을

유지한 채 과거 인연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총선에서 남구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지역을 뒤로 하고 서울에서 활동했던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광주 북구에 출마한 바 있는 임내현 전 고검장도 남구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공천에서 탈락하면 기존의 자신의 지역구로 이동하거나 또다시 남구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눈길은 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 공천 탈락자와 중립감과 신심함이 떨어진 인사들이 자천타천을 핑계로 출마 의사를 나타내면서 남구 보궐선거판은 더욱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고재유 전 광주시장이

량에도 불구하고 출사표를 냈으며 남구청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진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과 이철원 전 시의원도 도전장을 던졌다.

박상천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철근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이미 후보 등록을 마쳤다.

여기에 물밑에서 중앙당과 접촉을 시도하며 전라공천을 노리는 인사들도 상당수 있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과 이정희 변호사, 이민원 교수 등은 중앙당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최종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일부 정치인들이 별다른 진정성 없이 자리가 났으니 한 번 도전해 본다는 식으로 출마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행보는 남구 보궐선거를 희화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찬성 12, 반대 18로 부결된 가운데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기립하고 있다. /연합스

세종시 수정안 부결...원형지 공급 대상 적어 혁신도시 조성 차질 없어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관련법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도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들 사업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 혁신도시의 원형지 공급 대상을 종전의 공공기관 등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고, 기업도시에서는 개발주체(기업)가 사업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다른 기업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고, 기업도시는 현재도 원형지 형태로 민간에 토지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골프장 부지(82만㎡)와 전북 혁신도시의 농생명단지(673만㎡)와 외에는 원형지로 공급할 땅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기정 vs 김재균

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 주류-비주류 대결 가시화

차기 당권을 놓고 민주당 주류-비주류 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도 주류-비주류 의원 간의 경쟁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주류 측으로 분류되고 있는 강기정 의원(북)에 맞서 비주류로 꼽히고 있는 김재균 의원(북)이 광주시당위원장 출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22일 김재균 의원은 “최근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광주시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권유가 이어지고 있어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광주시당위원장 출마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당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강기정 의원은 당내 주류, 그리고 김재균 의원은 당내 비주류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다 북구를 양분하고 있는 두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일으킨 바 있어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은 지역 정치권의 핫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에서는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이 실시된다면 대의원 및 정당당원 경선보다는 흥행을 위해서라도 정당원 경선이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을 통해 기존의 허수 당원을 정비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주당 광주시당이 거듭 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김재균 의원이 출마를 강행한다면 결국 경선이 불가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김 의원이 결국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신분보증 339,000

학부스쿨코스 529,000

상업교육원특례비 779,000

신입생특별 장학금 398,000

4차로 서빙까지 각종-세탁-대청소 1시간40분

학원/여행비(377-10) 69,000

177-10 108,000

인문

529,000

460,000

399,000

398,000

488,000

529,000

488,000

529,000

620,000

880,000

비주류

108,000

175,000

99,000

118,000

129,000

239,000

289,000

279,000-309,000

국민공약 10대

779,000

889,000

239,000

289,000

279,000-309,000